

족쇄풀린 JY... 경영 안정화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초대형 M&A 등 ‘뉴삼성’ 가속도

삼성, 혁신작업 본격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드디어 ‘부당합병’ 의혹을 씻어내면서 삼성이 모처럼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기업가의 기본적 책무를 강조하며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다시 한 번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 회장이 대규모 투자와 공헌 활동을 확대하며 약속을 이행했던 만큼, 앞으로도 이 회장은 사회적 활동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모든 것 쏟아붓겠다” 약속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
반도체 1위 내줘... 경쟁력 약화 우려
최우선 과제 ‘의미있는 투자’ 꼽혀

무엇보다 이 회장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되면서 글로벌 경영 침체와 맞물린 경쟁 심화, 보호무역 등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으로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당장 ‘뉴 삼성’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故) 이근희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삼성을 이끌 미래 전략이 아직 부재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 뿐 아니라 국가적인 미래성장동력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수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 회장은 그동안 다양한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며 높은 통찰력을 증명했지만, 여전히 ‘신경영 선언’에 비견할만한 새신 계획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산업 육성책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사내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직 뒤쳐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러 사업이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 삼성전자는 어렵게 차지한 반도체 세계 1위를 다시 인텔에 뺏긴 상황이다. 메모리를 중심으로 파운드리까지 더하면서 경쟁력을 대폭 높였지만, 기술 난이도가 대폭 높아지고 정부를 앞세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됐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던 D램도 AI 시대에 HBM 등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파운드리 사업도 미세 공정을 선점하면서도 좀처럼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도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전자 계열사는 물론, 친환경 시대를 맞아 삼성물산 상사부문 등이 새로운 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도 밀려있는 숙제다.

이 회장이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과제로는 ‘의미있는 투자’가 꼽힌다. 삼성전자는 100조원 수준 유보금을 가지고 있지만 2017년 하만을 인수한 이후로는 그렇다할 인수 합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까지 의미있는 투자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경영 안정을 찾는다면 조속히 단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JY네트워크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오랜 기간 전 세계에 확보한 인맥을 활용해 삼성전자 반도체와 네트워크, 바이오 등 주력 사업에서 어려움을 직접 해소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직접 사업에 관여하지는 않아도, 경영자들이 책임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안정성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다면 지지부진했던 삼성 혁신 작업도 본격화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에는 최근 사회 공헌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며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아부었다. ‘함께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이라는 비전 아래 이 회장 주도로 전국에 ‘삼성청년 SW아카데미’와 ‘삼성드림클래스’, C랩 등을 추가 운영하며 청년 교육과 일

자리 창출 등에 힘써왔다. 삼성이 국내 주요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 역시 사회적인 역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사회 공헌 활동은 이 회장이 취임한 이후 전사적인 시너지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회 기부 활동과 명절 조기 대금 지급 등 상생 활동을 비롯해, ‘나눔 키오스크’를 활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전사적으로 함께 추진하며 기부 금액과 지원 분야를 늘리고 있다.

한편 당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도 판결이 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번 절차를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 부당합병 의혹, 수사 착수부터 이재용 1심 선고까지 SAMSUNG

2018년	7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결론
	19일	참여연대,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검찰 고발
	25일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 고발된 특수2부 배당
2019년	11월 20일	증권위, 대검찰청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발
	21일	서울중앙지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특수2부 배당
	4월 25일	검찰, 삼성바이오오피스 입직인 대상 첫 구속영장 청구
2020년	8월 6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수사팀 특수2부→특수4부로 변경
	12월 9일	법원, ‘삼바 증거인멸’ 부사장 3명 1심 유죄 선고
	2월 11일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검찰 출석
2021년	4월 24일	검찰,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조사
	5월 26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
	6월 2일	이재용 부회장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2022년	11월 11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회의 "이재용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결
	9월 1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기소 기소
	3일	법원, 부당합병 의혹 사건 형사합의25-2부에 배당
2023년	10월 22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8월 13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출소
	7월 29일	이재용 부회장 형기 만료
2024년	10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직 임명
	8월 25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100차 공판기일 진행
	11월 17일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2024년	2월 5일	법원,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뉴시스 그래픽

하이메리트 연말까지 누리는 특별 혜택

하이투자증권

국내주식 신용금리

연말까지

연 4.9%

+ 신용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제세공과금 제외)

국내선물옵션 수수료

매매만 해도

3+3개월

KOSPI200선물기준 0.00025104%
(온라인, 상품별 상이, 예스트레이더 제외)

미국주식 수수료

2개월 완전무료

+ 미국주식 매매 시 최대 60\$

국내/미국 타사대체

주식 옮기고 현금 받자!

최대 1천만원

(거래 조건 있음)

기간 2024.01.25 ~ 2024.04.16

대상 비대면 스마트지점에서 개설된 최초 신규 및 휴면계좌

비대면 신규/휴면고객 대상 ※100일간 주식수수료 국내0.01%, 개설일로부터 2개월 미국주식 수수료 완전무료(온라인)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 필독,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자산가격/원율 변동,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른 원금손실(0~100%) 또는 초과손실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속, 적정담보비율 미달 시 담보증권 임의처분 유의,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 시 개인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 유지중거금 미달 시 강제청산 유의 ※이벤트 미적용 국내 0.0972%~0.4972%, 미국 0.25%~0.5%, 매도시 SEC FEE 0.0008%(이벤트 시작일 기준) 별도 발생, 선물옵션 이벤트 혜택 종료 후 스마트지점 파생상품 시장 수수료율 적용되며, 선물 0.002%~0.04975%, 옵션은 0.15%~1.4% 수준 (거래금액, 매체별 상이), 상세 홈페이지 참조 ※이자를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계좌의 신용융자 정상이자율은 4.9%~9.5% 적용(기타별 소금)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0231호(2024.01.25 ~ 2025.01.24) | 하이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000-014호(2024.01.25 ~ 2025.01.24)

하이에서 시작하는 투자혜택의 중심

준비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신분증 (운전면허증 or 주민등록증)

1단계



iM하이 설치
(앱 스토어 or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이투자증권 또는 iM하이 검색)

2단계



iM하이 App에서
비대면계좌개설
신청하기 클릭

3단계



정보입력, 본인인증 및
신분증 촬영

4단계



하이투자증권에서
입금된 1원 입금확인

5단계



혜택 받음 준비 완료하고
거래시작하기

www.hi-ib.com | 디지털컨택센터: 1588-7171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0231호(2024.01.25 ~ 2025.01.24) | 하이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000-014호(2024.01.25 ~ 2025.01.24)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권 투자상품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 또는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좌 전고가 유지중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으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계좌의 일반위탁수수료율은 거래금액과 매체에 따라 국내주식 0.0972%~0.4972%, 선물 0.002%~0.04975%, 옵션은 0.15%~1.4%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미국주식 수수료 혜택 대상이 아닐 경우 미국주식 매매수수료는 0.25%(온라인기준)입니다. (매도시, SEC FEE 0.0008%(이벤트 시작일 기준), 제세금 별도 징수)
- 해외주식 환전 시 매매기준율 + 스프레드 0.1%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해외직접투자는 매매지시에 관하여 연250만원 기본 공제 후 압도소득세22%(지방세포함)가 과세됩니다. 또한 과세대상 PTP종목으로 지정될 경우매도금의 10%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 일종매매는 거래전략 등 증권시장 전망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단기간 내에 상당액을 손실할 수 있고, 잦은 매매로 인한 세금 및 수수료의 과다 발생으로 수익 실현의 기회가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이벤트페이지 하단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이벤트 바로가기

직원들 안도... 동요없이 업무에 집중

“글로벌 경기 침체속 잘된 일
경영에 집중 가능해져 다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삼성 직원들은 안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재판 전만 해도 삼성 내부에서는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배제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막상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사법리스크가 한 고비를 넘겼다는 분위기가 엮보였다.

5일 삼성은 1심 판결 직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회장도 판결 이후 별다른 소회 언급 없이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무죄 판결 이후 삼성의 회사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삼성 관계자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내부에서는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하게 업무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3년5개월을 끌어온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직원들은 내심 이를 반기는 모습이었다.

삼성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또 다른 관계자도 “무엇보다 경영에 집중할 환경이 마련된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계도 논평을 통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재용 기자